정기국회 개막… 4·3특별법 등 본격 논의

국회 100일간 일정 돌입 10월10일~29일 국정감사

무사증 제도·제2공항 등 제주현안 다수 다뤄질 듯

국회가 3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 기간 각 상임위는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와 법안 논의에 본격 나서며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도 치를 예정이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국회가 3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 기간 각 상임위는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와 법안 논의에 본격 나서며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도 치를 예정이다. 국감에서는 제주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최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에 돌입하기로 했다.

여야는 먼저 4일부터 6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이어 13일, 14일, 17일, 18일에는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1월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여야는 법안처리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9월 14일과 15일, 11월 1일과 15일, 29일, 30일, 12월 6일과 7일 열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내용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 원내교섭에서 민생을 위한 대화와 협치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펼쳐지는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의 관심을 모았던 제주 관련 이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제주 무사증 제도가 법무부나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공론조사를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문제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문제 등 1차 산업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올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최근 제주도가 정부에 건의한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해 국회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각각 소속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농해수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제주 현안을 풀어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위해 주민자치·복지향상 등 새로운 시도할 때"

권영호 제주대 교수 주장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지위 확보를 위해 정부 권한 이양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복지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권영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아스타호텔 코스모스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한국헌법학회·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 세미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에 대한 전국적인 시각 특히 정치권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특별지방자치의 내용이 집중적·구체적이지 못하다"면서 "제주 '특별자치도', 특히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을 제·개정했으나 제주 '자치' 도의 시행을 위한 법제도는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특별법의 개정만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만 치중됐던 까닭"이라면서 "주로 정부의 권한이양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과제의 발굴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아야 할 시기다"며 "역으로 주민자치와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이 과제를 시행함에 있어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다는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 세미나가 지난달 31일 아스타호텔에서 제주도·제주도의회·한국헌법학회·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사진=제주도 제공

"건설근로자 폭염피해 방지 의무화"

위성곤 의원, 법안 발의… 작업현장 개선 기대

여름철 야외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들의 폭염피해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의 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를 제공하며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는 2042명(사망 27명 포함)으로 지난해 하절기 총 발생건수인 1574명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이중 29.9%는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건으로, 야외 공사현장은 강한 일사량과 함께 공사장비 등에서 방출되는 열로 인해 온열질환의 위험성이 더욱 큰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비용문제나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시켜왔던 작업 현장에도 개선을 강제함으로써 작업자들의 온열질환 발생을 크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위성곤 의원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과 산업현장 근로자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중도개혁 통합세력으로"

바른미래당 당대표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당대표에 손학규(71·사진) 전 중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

바른미래당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를 열었다.

손 신임 당대표는 총 득표율 27.02%로 하태경 후보(22.86%), 이준석 후보(19.34%)를 제치고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됐다. 최고위원에는 하태경 의원, 이준석 전 지역위원장, 권은희 전 의원이 당선됐다. 또 당연직 최고위원인 전국청년위원장에는 단독 입후보 한 김수민 의원이 선출됐다.

손 신임 당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 승자독식 양당제라는 두 개의 괴물을 반드시 물리치겠다"며 "개혁적 보수와 미래형 진보가 결합한 바른미래당이 중도개혁의 통합세력으로 정치개혁의 중심에, 선봉에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부미현기자

내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주시 156건·127억 선정

제주시는 2019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56건·127억원을 선정해 제주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역주민 의견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 등을 거쳐 사업 적격성과 실효성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예산을 선정했다. 선정된 주요 사업은 '미세먼지 알려주는 신호등' '음악이 흐르는 버스 승차대' '야간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 태양광 표지병' 등이다.

선정된 사업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되며 분과위원회 심사와 전체회의를 통해 10월31일까지 최종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안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숙기자 hslee@ihalla.com

'상습 교통정체' 남조로 교래사거리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습 교통정체로 주민 및 관광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남조로 교래사거리 구간에 지방비 40억원을 투입해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편입 토지 보상실적은 95%, 전체 공정율은 40%를 보이고 있다. 내년 2월말 완공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교래사거리 교차로 전면 확장, 우회전 및 좌회전 차로신설, 최신 감응식 신호체계 도입, 붉은오름~갓 전시장 입구 3.3㎞구간 1~2차로 확장 등이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귀성객 및 관광객 등의 불편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 육성목장~삼다수공장 입구 제주시 방향 550m구간을 편도 1차로에서 2차로로 확·포장공사(기층포장)를 우선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올해 사업비 40억을 투입해 사업구간에 위치한 교량(제4교래교) 1개소에 대해 재가설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항공업계 하반기 1000여명 채용

항공·물류 산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취업을 알선하는 취업박람회가 잇따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7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항공산업 취업박람회'(www.aviationjob.net)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항공산업 취업박람회에서는 56개 항공 관련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채용 상담과 현장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규모는 1000명 안팎이다. 기관·기업별 채용 예정 인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88명, 한국공항공사 80명, 대한항공 200여명, 제주항공 300여명, 진에어 230여명, 에어부산 90여명, 티웨이항공 80여명 등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채용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언제, 어디서나 인재양성에 힘쓰시는 동문 제위의 영예로운
경 퇴임과 임용, 승진, 전직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축

1. 정년퇴직: 10명

전근무처		성명
하원초등학교	교장	강태근
하귀일초등학교	교장	김순신
신광초등학교	교장	박종익
이도초등학교	교장	좌용택
구좌중앙초등학교	교장	허현국
광령초등학교	교장	홍성진
남광초등학교	교장	홍창진
제주동초등학교	교사	강옥지
외도초등학교	교사	송순옥
제주동초등학교	교사	양복자

2. 명예퇴직(특별승진): 1명

전근무처		성명
하귀일초등학교	교감	서현주

3. 교장 중임: 5명

전보부서		성명
구좌중앙초등학교	교장(중임)	김근봉
서귀포초등학교	교장(중임)	김무근
서귀중앙초등학교	교장(중임)	현정열
외도초등학교	교장(중임)	홍상국
삼화초등학교	교장(중임)	홍희정

4. 승 진 : 18명

▫ 교육전문직원 → 교육전문직원: 3명

전보부서		성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관(교육장)	김진식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장학관(국 장)	임진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교원인사과	장학관	이창환

▫ 교감 → 교장: 6명

전보부서		성명
예래초등학교	교장	강순자
광령초등학교	교장	고진숙
서귀포온성학교	교장	고춘매
안덕초등학교	교장	김희옥
신창초등학교	교장	박형숙
성읍초등학교	교장	윤성희

▫ 교감, 교사 → 공모교장: 2명

전보부서		성명
하원초등학교	공모교장	박광철
종달초등학교	공모교장	김명선

▫ 교사 → 교감: 7명

전보부서		성명
월랑초등학교	교감	김옥희
삼성초등학교	교감	김용민
영평초등학교	교감	김은희
덕수초등학교	교감	강홍선
흥산초등학교	교감	우정훈
표선초등학교	교감	이윤정
대정서초등학교	교감	현영희

5. 전 직: 10명

▫ 교육전문직원 → 교장: 3명

전보부서		성명
제주남초등학교	교장	고성종
이도초등학교	교장	고영탁
신광초등학교	교장	장지순

▫ 교육전문직원 → 교육전문직원: 2명

전보부서		성명
탐라교육원	교육연구사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장학사	김은미

▫ 교육전문직원 → 교감: 1명

전보부서		성명
제주중앙초등학교	교감	고충희

▫ 교장 → 교육전문직원: 2명

전보부서		성명
제주학생문화원	교육연구관(원장)	임연숙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장학관(과장)	김영대

▫ 공모교장 → 교육전문직원: 1명

전보부서		성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장학관(과장)	강순문

▫ 교감 → 교육전문직원: 1명

전보부서		성명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교육연구사	김남규

6. 전 보: 13명

▫ 교육전문직원 전보: 1명

전보부서		성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교원인사과	장학관(과장)	고용범

▫ 교장 전보: 6명

전보부서		성명
도련초등학교	교장	강성지
화북초등학교	교장	강순일
남광초등학교	교장	김경희
해안초등학교	교장	양철주
하귀일초등학교	교장	윤정애
평대초등학교	교장	임성렬

▫ 교감 전보: 6명

전보부서		성명
하원초등학교	교감	고희숙
신광초등학교	교감	김희선
오라초등학교	교감	이화영
보목초등학교	교감	김 이
위미초등학교	교감	조수경
서귀중앙초등학교	교감	강경봉

7. 신규임용교사: 12명

전보부서		성명
외도초등학교	교사	김성훈
노형초등학교	교사	김영지
제주동초등학교	교사	문환수
도평초등학교	교사	신리나
저청초등학교	교사	양지희
삼양초등학교	교사	양혜연
하도초등학교	교사	우경수
노형초등학교	교사	이은경
도리초등학교	교사	조원경
무릉초등학교	교사	고대훈
위미초등학교	교사	고성진
동홍초등학교	교사	김은조

* 본 광고로 개별 축하를 대신합니다. *

제주교육대학교총동창회장 김 철 호 외 회원 일동

고문진보·명리반모집

○ 신설과목: 고문진보(한문고전), 사주명리기초
○ 장 소: 소학당한문학원(제주시 서사로 108)
○ 과목별 월 수강료: 60,000원
○ 수강료 입금처: 농협 178495-56-072440(이용림)
○ 접수상담: 064-757-4561

■ 요일별 성인부 교육과목

요일	시 간	과 목	수업시작일
월	오전 10시 ~ 11시 30분	주역원전 하경(함괘~, 계속반)	9월 3일
화	오후 7시 30분 ~ 9시	고문진보(*신설반)	9월 4일
금	오전 10시 ~ 11시 30분	사주명리 고급(계속반)	9월 7일
	오후 7시 30분 ~ 9시	사주명리 기초(*신설반)	9월 7일

院長/海山 李龍林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석사)
· 소학당한문학원장
· (주)아이교육 소학당 대표이사
· 제주향교 『명심보감』, 『대학』, 『맹자』, 『중용』, 『주역』, 『시경』 원전 강사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논어』, 『고급한문』, 『생활역학』 강사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생활역학』, 『경서강독지도사』 강사

소학당한문학원
☎ 064-757-4561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윈치용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사무실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